안녕하세요.
국가가 부른다 덕분에 금요일 아침부터 행복해지던 시청자입니다.
국가가 부른다는 제게,
트로트만 하는, 중장년층 전용 방송이라고 여겨지던 TV 조선 채널을 처음 보게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소감을 남기는 것도, 출연자분들 스케줄을 찾아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올해 초 잠시 해외에 있을 때에도 새벽 2 시에 일어나 4 시가 넘는 시간까지 노트북으로 본방사수하던 것도 생각나네요ㅎㅎ
제 일주일의 활력소와 같던 국가가 부른다가 종영을 맞이하다니...이렇게까지 속상할 줄 몰랐어요 ;(
그동안 국가단 10 인 분들 노래로 참 많이 위로 받고 행복했으니, 이 마음 꼭 전해드리고 싶더라구요..
국가부 관계자분 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구요!

1 년이 조금 넘는 방영 기간동안, 단 한 무대도 빠짐없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국가단분들 모습에 참 많이 행복했어요.
매 무대, 매 노래에 진심으로 몰두하시는 모습 너무 예뻤어요.
10 분 모두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매 무대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단의 모습 잊지 못할 거에요.
평소에도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옛날노래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단 몇 분의 무대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국가단 분들 덕분에 처음 느꼈어요.
많이 감사했답니다. 적다보니 이제 제 최애 코너 '붐과 음악사이'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 무대라고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는 가수님들 모습에 맘이 찡했어요.

(이름 가나다 순..ㅎ)
목이 아프던 날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성실함이 가득 느껴지던 김동현 가수님,
자신만의 매력으로 전에 본 적 없던 무대들 보여주신 김영흠 가수님,
'연'이라는 노래를 제 최애 노래 중 하나가 되도록 만든, 선한 마음이 느껴지던 김희석 가수님,
제가 처음 브로맨스 그리고 박장현 가수님에 대해 찾아보게 했던 상속자들 OST 버전 두사람 을 불러주신 박장현 가수님,
성격도 음악도 눈빛도 그 자리 그대로인 나무같던, 50 대도 귀여울 수 있음을 보여주신 박창근 가수님,
매 무대 폭발적인 에너지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주시며 락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신 손진욱 가수님,
방송에 나가지 않아 많은 아쉬워 한 노랑이들을 위한 무대인듯 다시 아시나요 를 준비해주신 이병찬 가수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듯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꾹꾹 마음 눌러 녹턴 을 불러주신 이솔로몬 가수님,
늘 수줍은 듯 웃고 모든 노래에 경청하는 모습이 참 예뻤던,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님 노래가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던 조연호 가수님,
묵직한 목소리로 한 소절 한 소절 정성들여 부르시는 모습이 멋있던 하동연 가수님,
그리고 우리 가수님들 진심으로 아껴주시던 신지 팀장님까지!

출연진 한분한분 너무 소중했어요. 이렇게 시청소감 남길만큼 정든 프로그램은 제 인생 처음이에요..
단 한 번 본방사수를 놓치지 않은 애청자로서, 국가가 부른다는 단연 최고 퀄리티의 TV 조선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누가 볼거라고 이걸 써' 했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 시청소감을 적는 이유는 하나에요.
꼭 마침표가 아닌 '쉼표'이길 바라요.
저는 국가부가 아니더라도 국가단 10 분의 무대들 찾아볼거지만,

10 분이 하나되는 시간은 국가가 부른다가 유일하니까요! 그 모습 더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 시청자가 많다는 것 알아주세요 :)

국가가 부른다,
기다리고 있을게요.